

내 작품은 함부로 만져도 됩니다

November, 2016 | 손안나 에디터

page 1 of 2



내 작품은 함부로 만져도 됩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모더니즘'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동안 물이 아팠다고 했는데, 정말인가요?
 예술 안에서 예술을 고민하는 게 모더니즘이잖아요.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은 모더니스트로서 예술만을 사고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자극을 줬어요. 정치적인 위압, 억압에 대응해서 민중 미술이 일어나기도 했구요.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답답함, 모더니즘과 민중 미술 사이에서의 갈등으로 육체적인 병을 얻기도 했죠. 그게 바로 '모더니즘병'이에요. 그런 거의 폐인 지경까지 갔을 정도로요. 신경과에 다니면서 약도 먹고, 민중 미술을 하는 동료들에 대한 부채 의식도 있었나요?
 상당히 심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내 길을 한번, 그야말로 아주 자못하게 가서 그 반대쪽에서 모더니즘의 끝장을 보겠다'는 결기의 방편이기도 했구요.
 결국 1981년에 본인의 대표작 '평면 오브제'를 종이 박스에 넣어 봉인했잖아요. 이 또한 '끝장을 보겠다'는 맥락이에요?
 맞아요. 그 또한 '끝'을 보려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액션이었죠.
 본인에게 반골 성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글썽요. 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자면, 반골 기질보단 한 가지를 끝까지 붙잡고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죠. 이런 반골 기질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일종의 모더니즘 윤리이기도 하고요. 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1970~80년대도 엄혹한 시대였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무한 경쟁, 계급 양극화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이 그때보다 더 희망적이라고 보나요?
 희망도 절망도 안 합니다. 지켜볼 뿐이에요. 희망의 화색의 대담 말고 무조건 하나를 고르려면 희망 쪽이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바뀐 세상에서 출구를 발견할

가능성은 젊은 세대들한테 있어요. 그들에게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죠. 젊은 세대가 결국 1970~80년대 운동 세대들보다 우둔하거나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표출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어떤 점에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보는지 궁금해요.
 성장과 생산의 시대는 끝났죠. 이제는 재배치의 시대랄까요? 생산 대신 수장·갈무리하고, 갈무리한 것을 나누고 배치는... 아, 이 얘기는 19세기 초 전라남도에서 생겨난 '정역'이라고 하는 일종의 철학 사상을 읽다가 깨달은 건데요. 지금 이 시대에 뭔가 그럴듯하게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작품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겠네요.
 3층 전시관에 있는 작품들이 바로 그런 바뀐 패러다임을 시각화한 거죠. 성장의 시대에 가능하던 '창조' 대신 이제는 기존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편집'해 보는 거예요. '살면화'라는 작품은 대학 시절 그린 자화상부터 최근 작품까지 다 한꺼번에 모아서 구성한 거구요.
 3층 전시관 입구에 쌓아놓은 종이 박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일종의 '애매함'이라는 건데요. 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그렇게 표현해 봤어요. 민중 미술에 애정을 갖고 있지만 제 작품은 그 사람들처럼 사회주의나 리얼리즘이 아니거든요. 모더니즘 입장에서는 또 왜 우리와는 등을 지느냐' 말하고요. 그런데 애매함이야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적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상징 질서로 표현되는 이 세상 이치에서는 여기 아니면 저기에 소속돼야 하고 분명히 자기 포지션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입구에 놓인 작품은 3층 전시장의 작품 포장을 풀 뒤 누운 쓰레기들이에요. 화이트 큐브라고

하죠? 전시장이라고 하는 네모반듯한 공간에 들어간다는 건 '여기에 있는 건 예술 작품입니다'라는 하나의 약속인데, 그 공간에서도 가장 애매한 입구에 애매한 작품을 갖다 놓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작품인지 아닌지, 뭔가 잘못돼서 잠시 여기에 보관하는 건지, 전시된 상태인 건지 애매해지는 거죠.
 관객들도 전시관으로 입장하다가 가우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 작품엔 제목이나 캡션도 붙이지 말고 도판에도 올리지 말라고 요청했어요(웃음).
 작품이 하나같이 때가 타고 까지고 낙사가 되었고, 심지어 어떤 건 깎여져 있더라고요. 반이정 평론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를 '의도적인 관리 소홀'이라고 표현했던데요. 좀 찢어지든가 부서지든가 드러내려도 괜찮은 작품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작품의 기준 중 하나예요. 작품에 손대지 마시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작품을 현실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비성현 예술 세계 속 오브제로 생각하는 태도죠. 손대면 안 되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 지지하고... 저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작품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뒤틀 수 있는 한 즐하려고 해요. 사실상 그래도 한계가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함부로 다루어진 것 같은' 작품들이 미술을 대하는 본인의 태도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작품에 대해 애정과 혐오를 동시에 느껴요. 물론 제가 하는 작업과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애정은 있죠. 하지만 예술계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관행에 대해선 혐오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술계 썼었네. 그러니까 나는 등 돌리고 내 작품하겠어' 이런

MONTH OUT



He is...

김용익은 젊은 미술인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 하는 멘토이자 평행이 원화 시마조로 잘 알려진 미술계의 어른이다. 단색화를 비롯해 민중 미술과 공공 미술을 넘나들며 뜨겁게 활동해 온 작가의 40년 여정은 11월 6일까지 일인미술관 (가까이... 더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실 연구에 있어 있는
중이 박스는 에베라이라는 작가 자신의
정리정돈 입장을 표현한 작품이다.

안 되더라고요. 혐오감이 심해질 때는 내가 내 작품을
학대하는 것 같아요.
아까 '애매함'이란 말도 했지만, 그런 위치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 보면 외로운 순간이 많을 듯해요.
요즘 들어 '내가 왜 이렇게 작품 앞면에 글을 많이
고적였을까?'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더라고요. 외로우면 혼자 증명증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품에 독백을 한 거죠.
2011년에 「나는 왜 미술을 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이는 지난 40년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온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음게요. 왜 미술을 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엔 약간
낭만주의적인 동기로 미술을 선택했고, 미술 안을
들여다보다가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다. 그런데 막상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이
미술이라는 게 눈앞에 뚜렷이 드러나는 게 아닌, 중점을 수
없고 혼탁하고 어려운 길이었다' 이렇게 말이지. 그래서
난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다가가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미술을 통해 무엇을 이루겠다는 욕심은
없어요. 그저, 난 알고 싶을 뿐이에요. ■